

광주지역 고교, 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교육 협력 활발

전남대-광주고 '인공지능·인문학', 동국대-수원고 '미래사회 핵심역량'...
조선대 메디컬학과-상일여고 협력...과목 개발·도입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대학들과 손잡고 특색있는 과목과 교과서를 수업에 반영하며 고교-대학 간 '교육 장벽'을 허물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대학과 협력해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 도입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고교-대학 협력 사업은 광산구 수원고와 동국대학교가 손을 잡은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이다.

'나, 너, 우리: 미래사회 핵심역량 키우기(가칭)'란 도서를 자체 개발한 동국대가 이를 활용한 선택 과목 개설을 수원고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수원고의 특색사업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눈여겨본 동국대가 자신들이 자체개발한 도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판단해 선택과목 개설을 요청했다.
동국대가 만든 '나, 너, 우리: 미래사회 핵심역량 키우기(가칭)' 도서는 광주시교육청 교과서 인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8년도 교육과정에 편성할 예정이다.
수원고는 이 밖에도 5~6교시를 활용해 한국에너지공단·호남대·조선대·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계해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수업을 개설하고 대학교수 초빙 수업도 한다.
수원고 정종재 교장은 "대학과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제일고도 조선대학교와 '광주근현대사 1, 2' 교육과정과 '광주근현대사1' 교과서를 개발했으며, 출판을 앞두고 있다. 내년 2월까지 '광주근

현대사2' 교과서용 자료도 제작해 내년 1학기부터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광주고는 전남대와 인공지능(AI) 실습 교육·인문학 교실 등을 운영하고, 전남고는 지난해 전남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31개 학과와 함께 36개 협업수업을 했다.
상일여고도 조선대 의예과·약학과·간호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과제연구 활동과 과목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간 협력은 선택과목 개발뿐 아니라 학점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고교생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달 조선대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

제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과학·예체능 등 고등학생 대상 학점인정 과목 2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조선간호대와도 간호 과목 개발에 들어갔다. 최종 승인된 3개 분야 과목이 오는 9월 조선대·조선간호대에 개설되면, 이들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점은 물론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들이 특색있는 과목과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경쟁력 있는 교육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며 "대학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학교 '제 2회 K-컬처 페스티벌' 성료 K-POP·K-한글 콘테스트...베트남·카메룬 등 28개 팀 참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과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을 위해 K-POP과 K-한글 등 한류 문화 축제의 장을 열었다.
〈사진〉 동강대는 지난 15일 캠퍼스 5층 나이트게일홀에서 '제2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25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다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호남권 대학 최초로 국내·외국인이 함께하는 'K-컬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여기에 동강대 어학연수생을 비롯해 베트남, 튀르키예, 카메룬, 인도네시아, 몽골,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적 외국인들이 축제의 장을 맡겼 즐겼다.
'K-컬처 페스티벌'은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예선을 통과한 28(K-POP 15·한글 13)개 팀이 실력을 뽐냈다.

'K-한글 콘테스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교육, 음식, 교통, 예절, 존댓말, 식사, 낯장, 민속명절, 전통의상 등 자국 문화와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K-POP' 부문은 베트남 출신 도란정 씨가, 'K-한글' 부문은 '발상 문화·낯장'에 대해 이야기 한 베트남 출신 응웬 티란탐 씨가 각각 받았다.
이밖에도 전통무용 및 판국, 난타공연, 태권도 시범, 서플댄스, 마술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세계를 주도하는 K-문화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생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 앞으로 동강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공정·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학교장터 사용자 교육...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 업무 간소화

전남교육청이 지역 상생을 위한 공정·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도내 각 지역에서 '2025년도 학교장터(S2B) 사용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급 기관(학교) 계약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S2B 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S2B 사용자 교육은 매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은 ▲정리 교육 ▲S2B 시스템 활용 방법 및 사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연계 안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9종을 1종으로 통합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가 S2B 시스템에 도입되면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S2B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계약업무 전반의 오류와 애로사항을 줄이며,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현 전남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계약담당자들의 업무가 한층 간소화되고,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3일 해남동초등학교 해남꿈누리센터에서 계약 업무담당자들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호남대, 광산구·광저우시 판위구와 교류 협력...글로벌 역량 강화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 유학생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최근 총장실에서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 당력명(唐力明) 조직부 부장을 비롯한 6명의 교류단, 광주 광산구 정찬영 문화교육국장을 비롯한 방문단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정찬영 문화교육국장은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과 대학들이 집중된 지자체로, 판위구 교류단이 '평동공단을 비롯한 산업시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해 호남대학교를 선정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라이즈 단위 과제 중 글로벌 오픈 캠퍼스 사업은 해외 대학과 교류 및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광산구와 협력하여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광산구와 판위구 사이 교류의 디딤돌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박상철 총장과 당력명 광저우시 판위구 조직부 부장 일행, 광산구 관계자들은 교환 교수 프로그램과 학생 교류를 통한 양국 간 학문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 증진,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교수 간의 지식 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저우시 판위구 교류단 일행은 호남대 캠퍼스와 기계자동차공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교육시설 및 학교 실습실을 둘러봤다.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는 광저우시 중남부, 주강(珠江) 삼각주 중부 하천망 지대에 위치하며, 웨강아오 대만구에 속해 있다. 판위구에는 광저우 대학 성내 중산대학, 화남이공대학, 화남사범대학 등 총 26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호남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중국의 우수 대학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